



“선한 영향력 지닌 ‘발레리노’로 기억되고 싶어요”

발레리노 전민철이 지난 1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 '로얄발레단 25주년 기념 공연'에 출연했다. 공연에 앞서 주연배우 분장실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월드 클래스로 도약 발레리노 전민철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6월 입단
세계 3대 무용단...국내 최연소
'광주로얄발레단' 25주년 무대
문화예술요원으로 광주서 근무
영재발굴단·유퀴즈 등서 소개도

‘세계 3대 무용단인 마린스키발레단에 입단 예정’, ‘코르 드 발레(군무) 단원을 건너뛰고 솔리스트로 데뷔’,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무용수’... 국제 발레무대에서 걸출한 ‘영 건’으로 떠오른 전민철을 표현할 다음 수식어는 무엇일까. 지난 15일 오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주연배우 분장실에서 발레리노 전민철(20)을 만났다. 이날 광주로얄발레단(대표 오윤환)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파키타 그랑 파드되’를 선보인 그는 발레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바로 문화예술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며 지역 주니어 단원을 무상 지도해 온 점이다.

전 씨는 “솔로 바리에이션부터 캐릭터 표현까지 지도하는 강사 역할을 맡으면서 2년 동안 광주, 전남의 ‘발레 열기’를 온몸으로 느꼈다”며 “무용 꿈나무들의 질실함을 알기에 지역 발레인과 함께 만드는 오늘 공연이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는 오는 6월 러시아 마린스키발레단 국내 최연소 입단을 앞두고 ‘발레계 아이돌’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 남자 무용수 중 김기민(2011)에 이어 두 번째 합류다.

전 씨는 아직 “기대 반, 걱정 반이지만 발레 기술과 표현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는 중”이라며 “소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 러시아어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 딱갈비 등 구수한 남도 밥상에 익숙해졌지만 낯선 해외 생활을 앞두고 긴장된다 고 했다.

그가 마린스키에 입단한 데는 수석 무용수 김기민의 도움도 컸다. 김 씨가 유리 파테에프 감독에게 전 발레리노의 영상을 보여준 뒤 오디션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 먼저 진출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주는 모습에 대해 그는 “살아가며 잊을 수 없을 감사한 경험이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선배가 (나를) 좋게 봐주셨듯 먼 훗날 뒤따르는 이를 선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자신도 타인에게 관심을 쏟는 일의 어려움을 알기에 김기민의 도움이

각별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처음 오디션을 볼 때 그는 “마린스키 자체가 로망이었기에 등급(솔리스트·군무)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 말했다. 그러다 단장이 안무를 호평하면서 솔리스트 입단 제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전 씨는 입단 통보를 받았던 순간을 회상하며 “내가 제대로 메시지를 해석한 게 맞나 의구심이 들었다”며 웃어 보였다. 마린스키행(行)을 결정 지은 그해 7월은 그에게 생생한 ‘현재 진행형’의 기억일 터다.

그동안 전 씨는 한예중 무용원, 선화예술중·고교 졸업 및 유니버설발레단 객원무용수, 2023년 YAGP 콩쿠르에서 파드되 1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거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오디션에 참가했던 경험도 잘 알려져 있다.

오늘의 전민철을 만든 토대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발리스콜에서 합숙을 한 뒤 최종 캐스팅에서 낙방했던 일이 떠오른다”며 “그때 빠져버린 실패가 값 비싼 자양분이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 큰 목표를 갖게 되면 자신을 욕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술을 왜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다 보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전 씨가 가치를 두는 예술관은 행복이다. 신체 언어로 행복감을 고조시킬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사실 저는 소페(점프)에 취약한 무용수였습니다.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연마다 보니 약점이 장점으로 승화된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발레에 천부적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죠. 대신 꾸준히 도전하는 ‘의지’만큼은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본 그의 점프는 수사적 표현을 넘어 깃털처럼 가벼웠다. 고혹적인 스페인 풍 이인무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모습은 프랑스 궁중발레의 화려한 분위기와 경쾌함을 아우른다.

전 씨는 여전히 발레 어법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중이다. 작품에 따라 가볍게 뛰어올라 할 부분과 그 반대를 구분하고, 자신만의 악센트와 변주를 고민하며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한다. 언젠가 ‘백조의 호수’나 ‘로미오와 줄리엣’, ‘지젤’ 등 클래식·낭만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선한 영향력을 지닌 발레리노”로 기억되고 싶은 전민철은 앞으로도 뛰고 또 뛸 것이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신의 발레 언어가 단 하나도 곡해되지 않고 오롯이 전달됐으면 하는 것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칸타빌레’

고전과 현대의 경계... 형상과 색으로 구현

송숙남 개인전, 18~26일 서울 평창동 삼세영갤러리

송숙남 작가(광주대 이사장)의 16번째 개인전 ‘Special Exhibition’이 열린다. 1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평창동 삼세영갤러리.

이번 전시는 홍익대 후배와 광주대 제자들이 32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이사장의 노고를 축하하고 감사 마음을 담아 마련했다. (오픈식 18일 오후 4시)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구현해왔던 작품들의 이미지 흐름을 대략 가능할 수 있다. 판화와 드로잉을 매개로 복합재료를 활용해 창작된 작품들은 현대적인 감성과 동양적인 미감을 발한다.

회화를 비롯해 천연보석과 18k를 소재로 제작한 아트주얼리 작업 결과물에는 30여 년 창작의 여정이 담겨 있다.

송 작가는 “예술을 벗 삼은 세월이 오십 해가 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즐거움과 고심은 비슷하여 느낌과 직관에 따라 경계의 이동과 개

념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의 하나가 되면서 전혀 나와 무관한 심상을 전하는 일이 낯설지가 않다”고 전했다.

역동적 형태의 리듬감 생생한 회화작품은 색채평면의 경향과 유기적 추상표현주의라는 두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감각의 작품들은 고전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든다. 작가의 내면에 깃든 감정과 사유가 회화의 선묘를 따라 다채로운 형상과 색으로 구현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송 작가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에서 판화 과정을,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 석판화 과정을 공부했다. ACC, 광주비엔날레 이사, 한국 디자인협회 이사,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대 위에 핀, 실버 예술가들의 이야기

지역문화진흥원, 27일까지 공모

‘실버 마이크’는 60세 이상 공연예술가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작년에는 대중음악가 기현수, 준&준, 온가람 실버예술단을 비롯해 Eb 트리오, 성악가 김병원, 순천낙안읍성의소리 등이 무대에 올랐다.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 마이크-절라-제주권’ 행사가 올해도 지역 관객을 만난다. 연중 진행되는 본 공연에 앞서 오는 27일(오후 6시)까지 참가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메일 신청)

올해 공모 슬로건은 ‘무대 위에 핀,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문화적 감수성을 공연예술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1~10명으로 구성된 팀원 전원이 6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연고를 지닌 지역예술가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4개 팀이 현장 오디션을 거쳐 최종 12개 내외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공연 기회와 전문 촬영 지원, 공연 사례비 등을 지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실버 마이크’ 현장 오디션 장면. (광주일보 자료)

원받게 된다. 3분 이내 공연 영상 원본파일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상에는 촬영 일시와 팀, 곡 소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사 관계자는 “전라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지역 예술가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예술적 감각이 빛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 요강 확인.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파독 간호사와 호스피스 리더의 사랑 ‘두 사람’

광주극장, 23일 관객과의 만남
서울여성독립영화제 관객상

다양성에 대한 영화를 관람한 뒤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소개받는다. 게스트로 출연한 두 서점지기가 관객들에게 ‘관란한 질문’을 건네고, 소수자 인권을 돌아본다.

광주극장이 영화 ‘두 사람’ 관객과의 만남(GV) 행사를 오는 23일 오후 1시 20분 영화의 집에서 연다.



‘두 사람’

반박지는 감독의 ‘두 사람’을 상영한 뒤, 독립제작 이것은 서점이야이다(이하이서점) 박수민·한재원 공동대표가 생각을 나눈다.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이주한 뒤, 지역 사회와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수현은 간호학교를 졸업한 호스피스 리더 인선을 만난다. 40여 년 전, 재독여성 대화에서 운명처럼 마주한 두 사람은 이번 1세대이자 이주 노동자, 귀어로서 서로의 안식처가 된다.

작품은 제5회 서울여성독립영화제에서 장편 경쟁 부문 관객상을,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선택상을 받았다. 주역인 이수현, 김인선 역에 본인들이 직접 출연해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당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지금, 나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등 스페셜 예고편 속 문장은 사랑의 다양한 양상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관람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채로운 결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며 “사랑은 때론 확신, 망설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충분조건일 것이다”는 후기를 남겼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설명회

1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2025 광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와 맞물려 사업 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연다.

먼저 ‘예술시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세대통합으로 나누며 참가자 성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총 4억, 26개 내외 단체·시설을 선정한다.

‘창의예술학교운영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단체·시설은 동일한 학사 일정을 운영해야 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해야 한다. 모두 4~7곳을 뽑을 예정이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생애전환기(경력 보유·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신중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년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경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예술’과 ‘놀이’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보급하는 사업이다. 개정누리과정 연계를 필수로 해야 하며 총 3개 단체·시설을 선정한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대상이 되는 국립급 교육시설이 우선 선발 대상이며, 생활권역 내 공공 문화 시설 등이 해당한다. 올해는 5개 시설을 선발할 계획이다.

노회용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는 광주 시 문화예술교육의 ‘예술시민이 되다’라는 비전에 따라 일상 곳곳에서 문화교육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획자와 단체, 시설 등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 참여를 희망자(단체, 시설 등)는 광주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5일~3월 4일(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